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 목적 외에 작가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의 허락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복제,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맛집 습격사건

(똥똥한 가족의 맛집 로드무비)

등장인물

도영만/ 남 49세 푸짐한 레스토랑 주방장 겸 사장.

김창숙/ 여 45세 푸짐한 레스토랑 주방장의 아내.

도민구/ 남 20세 푸짐한 레스토랑 주방장의 아들.

도민아/ 여 12세 푸짐한 레스토랑 주방장의 딸.

그 외...

-프롤로그

이 이야기는

4인 가족의 몸무게 합이 400kg 대에 육박하는 푸짐한 비만 가족의 이야기다.

양치질 할 때 치약 거품이 절대 욕실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는 사람들.

치약 거품이 모두 배위로 떨어지는 사람들. 그들이 지금 소개하는 도영만씨 가족이다.

먹는 것이 좋아 주방장이 됐다는 아버지 도영만 (49세) 몸무게 120kg을 필두로,

홀과 카운터를 담당하는 80kg 대의 엄마 김창숙 (45세).

그들은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는 금술로 슬하에 1남 1녀의 자식을 두었는데,

100kg을 목전에 둔 재수생 아들 도민구 (20살) 와 65kg을 넘어버린 초등학교 5학년생인

딸 도민아가 바로 그들의 창조물이다.

Main title

맛집 습격사건

도영만씨 부부는 서울 변두리에 “푸짐한 레스토랑” 이란 이름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푸짐한 레스토랑은

25년 요리경력이 무색하게 특별히 잘 하는 음식이 없는 한식에서부터 분식류, 경양식류에서 안주류 그리고 계절 별미까지... 없는 게 없는 메뉴들로 무장한 한마디로 별 특색 없는 식당이다.

굳이 특색을 하나 이야기 하자면, 많은 메뉴에도 불구하고 특색 없는 맛과 항상 신선한 재료를

유지한다는 점인데, 이것 또한 안 팔리고 남은 재료들을 몽땅 먹어 치워 버릴 수 있는 도영만네 가족구성원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고. 많이 줘서 푸짐한 레스토랑인지. 가게를 하는 사람들의 몸집이 푸짐해서 푸짐한 레스토랑인지는 알 수 없고. 간판에 쓰여진 레스토랑은 뭐 도영만씨의 바람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

푸짐한 레스토랑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현수막 하나.

“저희 푸짐한 레스토랑의 모든 음식에는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경제가 워낙 불경기인지라 푸짐한 양 때문에 찾는 단골손님들은 은근히 “조미료를 넣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라고 특색 없는 맛을 돌려 이야기도 해보지만 “우리 가족들이 먹는건데”라고 정색을 하는 도영만씨.

푸짐한 양을 보고 오는 단골손님과 간간히 오는 뜨내기손님으로 사는 것은 빠듯하지만, 같이 시장을 보러 다니는 부인의 운동화 끈을 무릎 꿇고 다시 매주는 자상함과, “수능점수가 판단해줄 적성을 왜 미리 사서 걱정 하느냐?” 는 아들 녀석의 말을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녀석의 판단을 존중해주고, 딸 민아의 체격을 보고 한국 최고의 역도 선수로 키워 보고 싶다는 민아의 초등학교 역도부 코치의 말보단 이효리 같은 섹시 가수가 되겠다는 딸 민아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넉넉한 덩치답게 조급해하지 않고, 남들이 말하는 다이어트 보단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임을 주장하며. 우리 같은 몸은 자기가 제일 잘 안다며, 똥똥해서 오는 병 보다 스트레스로 오는 병이 훨씬 큰 법이란다. 도영만씨 자그만 소망은 앞으로도 가족과 함께 잘 먹고, 잘 싸며 건강하기만 바랄 뿐이다.

여기서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아버지 도영만이 잘 싸지 못한다는 데 있다. 요즘 배변이 잘 안 되고 잔변감도 있어서, 하루에도 몇 번씩 화장실을 들락거린다. 그렇다. 도영만은 치질을 앓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치질 수술을 받으러 간 도영만
치질 수술을 받으러 간 도영만은 병원에서 뜻밖에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는다.
배변에서 피가 좀 나오고는 했지만. 대장암이라니..그것도 말기...
“아니 이 지경이 될 때 까지 어떻게 참으셨어요?”
“예? 제가 좀 둔하긴 한데...”
“대장암이나 직장암이 늘어나는 원인은 과도한 육류섭취 운동 부족, 정신적 스트레스, 과도한 음주가 원인인데...”
“저는 스트레스도 안 받고, 술도 안 먹는데요?”
“그게..저 ...암 이란 게 그렇습니다. 담배 핀다고 다 폐암 걸리는 건 아니고. 담배 안 핀다고 폐암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 그 밖에 스트레스라던가...암이 왜 걸리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선생님 전 어떻게야 하나요?”

“수술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방법이며, 방사선요법은 추가적인 보조요법으로 암이 번지거나 재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사용됩니다. 또 방사선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흔히 동시에 항암제를 병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도영만씨 같은 경우는 너무 진전이 많이 경우라.....”

“살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장담할 수 없습니다. 길어야 3개월 정도..”

“일단 입원부터 하시고..”

“이런 것들을 다 병행 한다면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치질 수술 하러 갔다가 대장암 말기 환자가 되어 돌아온 도영만.

정말로 많은 생각들이 머리를 스쳐간다. 이제 어떻게야 하나? 난 정말 죽는 걸까?

죽는 건 어떤 것일까? 내가 죽으면 내 마누라와 새끼들은....

정말 미칠 것 같은 마음에 처음으로 안주도 없이 술을 마셔대는 도영만.

-암 걸린 다음날

가수 이현우의 “헤어진 다음날” 의 가사처럼

“어제 아침엔 이렇게 않았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떠보니 모든 것이 달라져 있어요”.

아침에 눈을 떠보니 모든 것이 달라져 보이는 도영만.

시장을 가기 위해 차에 타는 도영만과 김창숙 부부.

“이제 당신이 운전해봐! 면허도 있잖아!”

“왜 그래? 10년 장롱면허보고 도로로 나가라고?”

엉망진창인 김창숙의 운전실력.

시장까지 가는 길에 사고가 여러 번 날 뻔 한다. 큰소리를 치는 도영만.

시장에서 여지없이 풀어지는 마누라의 운동화 끈.

아직은 젊은 마흔 다섯 살의 저 여자를 보라. 뱃살 때문에 운동화 끈을 혼자서 매지 못하는

할 줄 아는 거라곤 해맑게 웃으며 나를 향해 돌아보는 것.

80kg 이라고는 하는데, 내가 보기엔 더 나가는 것 같다. 거기에 스무 살 된 아들과 열 두 살 된 딸까지..

아무리 부부싸움을 한날 이라고 해도 내 몸에 발가락이라도 하나 걸쳐놔야 그 체온으로 잠을 이루는 여잔데...저런 몸매에 그런 흑 까지 딸린 마누라는 재혼하기도 힘들다.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

그거 운전했다고 피곤한지 옆자리에서 곤히 잠든 내 마누라 김창숙.

이렇게 며칠 더 운전해 줄 수 있을까? 를 생각하는 도영만.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우산도 가지고 가지 않은 아들을 위해 우산 하나를 더 들고 나서는 도영만.
아무리 생각해도 적성을 수능 점수가 정해준다는 그 녀석의 말이 맘에 걸린다.
재수학원에 민구가 없다.
친구들 말로는 민구는 학원에 안 나온 지 벌써 두 달은 된 것 같다고 한다.
친구들 말을 들어보니 집에서만 큰소리치지 밖에 나가선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다니는 것 같다.

옆에 있는 여자에게 그나마 작은 우산을 다 씌워주고, 전향자 요리학원으로 들어가는 도민구.
저 조그만 여자애는 민구가 비에 젖는 지에는 관심도 없나?
뭐야? 이 자식 지금 연애중인거야? 재수생 주제에?

민구를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길거리 대형 간판에 걸려 있는 대형 포스터를 봤다.
모델이름에 이효리라고 적혀있다.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확실히 나와 있다.
저 여자가 민아가 그렇게 이야기 하던 이효리구나..
그녀의 허리는 12살인 민아의 허벅지 같다.

가족들의 저녁식사

TV에서 입양된 한국여성들의 다큐멘터리를 열심히 보고 있던 민아는 입양 당시의 사진과 지금의 모습을 보더니, 입양 후 그녀들의 공통점은 눈 꼬리가 올라가고. 가슴이 한국여자보다 더 커진 것 이란다.

그런데 그 이유가 영어를 써서 그렇단다.

그리고 모든 말을 영어로 하기 시작하는 도민아. 가슴이 커지려는 노력이다.

그 이후로 김창숙과 도민아는 물론 거의 외국인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태원에 옷을 사러 가지만.
민아는 영어로 말하기 위해서. 엄마는 쇼핑을 위해서 이태원을 열심히 다니겠단다.

마누라. 딸. 그리고 아들.....

도영만은 이런 사회 부적격자들을 놔두고 눈을 감을 수가 없다.

먹는 것을 좋아해서 변변히 들어놓은 보험도 없고. 되돌아보면, 계속 맛있는 것을 먹으며 웃고 즐기고 살아온 것이다.

도영만은 그동안 왜 이런 엄청난 문제점을 지닌 가족들을 그대로 방치해 왔을까? 후회한다.

도둑질을 해서 돈을 벌까 해보지만. 제대로 달리지도 못하는 뚱뚱한 몸으로 무슨 담장을 넘을 것이며, 아니면 차량 보험사기. 은행털이...갖은 공상을 다해보지만....

의사가 과도한 스트레스는 병을 더욱 진전 시킨다더니...몸이 너무 아프다.

아버지로써 이 집안의 가장으로써 이렇게 무책임하게 죽을 순 없다.
최소한 남아있는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게 무언가를 해 주고 떠나야 할 텐데...
그래. 이제라도 변해야 한다.
내가 변해야 남은 식구들이 살 수 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시간이 얼마 없다.

-장남 도민구

그래 내가 없으면 이 집을 이끌어갈 가장이 되는 놈인데.... 준비할 시간을 줘야지.
술도 가르쳐 주고, 사회생활을 배우게 하자.
“이제부터 니가 가장이다. 엄마와 여동생을 보살펴야 한다.”
무엇보다 겁이 많은 아들 녀석에게 책임감과 용기를 심어 주어야 한다.
돌아가신 할아버지 품에 너무 오냐 오냐 커서
아직도 치과 가는 것을 제일 무서워하며, 충치에 항상 치약을 바르고 다닌다.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이가 안 좋으셨는데, 항상 치약을 입에 물고 사셨다.
덕분에 순간적으로 진통은 됐는지 몰라도 항상 입에 거품을 물고 사셨다.

술을 먹으며 이야기할 타이밍을 노리는 도영만.
술은 아빠한테 배우는 거야. 술을 계속 따라주는 도영만.
몇 잔을 연거푸 받아 마시는 민구의 얼굴이 빨개진다.
어렵게 말을 꺼내려는 순간. “저, 아빠!”
타이밍을 놓치고 마는 도영만.

“으응?”

“사실은 목숨보다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래?”

민구는 방황하고 있었다.

민구는 전향자 요리학원에 다니고 있다. 아무 생각 없이 예쁜 여자를 버스에서 내려 무작정 쫓아
갔는데. 그곳이 바로 전향자 요리학원이었다.

얼떨결에 등록해 버리고. 아버지의 레스토랑을 대를 물려 이르러고 요리학원에 다닌다고 이야기
를 해버렸다고 한다. 재수 학원 보다 요리학원을 열심히 다닌 민구.

하지만 민구는 그 누나에게 말 한번 붙여보지 못한 용기 없는 썩맥이다.

“고백할 용기가 없어요”

“그래? 여자는 아빠한테 배우는 거야!”

“어떻게?”

민구아 미안하다. 하지만 지금 넌 이럴 시기가 아니란다.

너도 나중에 다 이해하게 될꺼다. 도영만은 전향자를 찾아가서 다시는 민구를 만나지 말라고 말
한다.

민아 때문에 늘 찾아오던 역도 코치를 찾아갔다.
그리고 딸애가 얼마만큼 가능성이 있냐고 물었다.
역도 코치는 한국의 대표적인 역도선수 장미란을 이야기 한다.
키 : 170cm 체중 : 114kg, 아테네 올림픽 은메달, 아시안게임 은메달 세계역도선수권대회 금메달
국제역도연맹(IWF) 세계랭킹 1위(2005)
민아는 장미란을 능가하는 대형 선수가 될 거라 확신한다며 맡겨만 달라고 하는 코치.
“초등학생 체격이 저 정도면 대한민국에서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코치님만 믿고 맡기겠습니다.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역도부에 가입 신청서에 싸인을 하고 왔다.
코치는 민아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전국체전에 내보냈겠다고 들떠있다.

물론 그 좋던 민아와 나 사이는 망가져 버렸고.
파도를 낸 전향자 때문에 아들 녀석 역시 그날 밤 치약거품을 물고 울고불고 날뛰었다.
이제 딸애는 나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않는다.
하지만 도영만은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마누라
내가 죽으면 젊은 나이에 재혼이라도 하던지 해야 사는데.
저 여자 천상여자라 살림 밖에 모르고, 남편 밖에 모르고 살아왔으니...
잘 뜯어보면 이목구비는 괜찮은데. 성격도 모나지 않고..살만 빼면 되는데.
먹을 것을 줄이고. 운동을 시켜 보고, 내가 갑자기 없어지면 한동안은 힘들 테니 심지어 슬픔을
달래는 데는 술, 담배가 최고라...담배도 배워보게 했지만...
곰탱이 같은 마누라는 남편이 하란다고 힘들다는 군소리 한번 없더니 픽하고 쓰러져버린다.
의사 왈 무리한 운동으로 관절에 무리가 와서 뼈에 물이 찰 수도 있다고 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가족들은 왜 갑자기 잔소리를 많이 하냐고 마누라와 아이들의 성화가 대단하다.
마누라 슬픔 달래라고 배워보라던 담배는 이제 도영만이 피고 있으니...
암 선고를 받고 난 이후 도영만은 자신의 생명을 자기가 알아서 단축시키고 있는 꼴이 됐다.
안마시던 술도 마시고. 스트레스도 엄청 받아서 그런지 병은 더 심해지는 것 같다.
이렇게 떠나면 남겨진 가족들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도영만은 남겨 줄 수 있는 유산이라고 가게 하나와, 언젠가부터 조금씩 모아온 비자금이 자신이
가족에게 남겨 줄 수 있는 유산임을 한탄한다.

도영만은 다시다(화학 조미료)를 손에 들고 음식에 넣을까 말까를 고민하다 결국 넣는다.
단골손님들이 맛이 새로워졌다고, 독특해졌다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기 시작한다.
비법이 뭐냐고? 묻는 단골손님들...
“저희 푸짐한 레스토랑의 모든 음식에는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수막을 바라보고 있는 도영만. 부끄럽다.

비법?그래. 비법...

조미료 맛은 금방 질리게 되어있어. 그 비법을 알아낸다면

그렇지. 대박 맛집의 오랜 비법을 알아낸다면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푸짐하게 퍼 주기만 하는 식당이 아니라. 정말 맛이 있어서 기다려서 먹을 맛집이 된다면

엄청난 돈을 퍼 주는 것 보다 훨씬 더 도영만은 편안히 떠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맛집을 비법을 알아내서 전수 시켜야 내가 편안히 하늘나라로 갈수 있을 것 같다.

모두들 음식이라고 하면 환장을 하고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더 넣었으면 좋겠는지는 선수들이
니까.....

괜히 4백 키로인가? 우리 가족 미각을 합치면 비법 쫓아야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 물고기를 잡아 주는 것 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고 탈무드에서 말하지 않았던가...?

장사 잘 되는 식당에 먹기 좋아하는 우리 가족들이라니...이거 보다 더 좋은 해법이 있을까?

그래 슬퍼할 겨를이 없다.

그래 마지막 꼬불쳐둔 돈으로 맛 기행을 떠나는 거다.

이 정도 돈으로 항암 치료 받아봤자. 돈만 들고 오히려 가족들에게 짐만된다.

이제 곧 민아의 방학이다.

도영만은 밤잠을 자지 않고.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대표 맛집 100선을 엄선한다.

철저히 준비를 해서 그들의 비법을 알아내자.

그리고 이 맛 기행은 이 세상에서 하는 마지막 가족여행이 될 것이다.

음식의 종류. 재료. 서비스, 만드는 시간. 가격, 계절을 타는지 안타는지부터 고르고 또 고르며,

맛집 100선을 엄선하느라 더욱 쾅 해진 도영만의 얼굴.

진짜 암환자 티가 물씬 풍긴다.

그러나 가족들은 도영만의 마음대로 움직여 주질 않는다.

민구는 고백할 용기조차 싹을 잘라버린 아버지와는 못 떠나겠다고 그러고.

민아는 역도부 취소 싸인을 해주면 떠나겠다고 그러고.

마누라 하나 이때 아니면 언제 여행한번 해보겠냐고 당신이 웬일이냐고 그러다.

전향자 요리학원을 계속 다니게 해주겠다고 아들과 약속하고, 역도부 취소 싸인을 했다고 민아에
겐 거짓말을 하고, 우여곡절 끝에 떠나게 된 맛 기행.

서울에서 갯내음 가득한 서해안으로 설악산과 동해의 막국수와 순두부, 감자 웅심이 집을 거쳐
영남권으로 진입 북곡, 동래파전. 마산 아구찜 집으로 지리산 흑돼지. 토종 닭백숙집을 거쳐 섬진

강의 재첩국 백반을 거쳐 홍어, 된장 물회. 붕장어로 끓인 장어탕이 있는 전라도로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면서

안성휴게소 안성국밥, 인삼랜드 대진고속도로 하행선 인삼야채볶음밥, 대천휴게소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해물돌솥비빔밥, 산청휴게소대진고속도로 상행선 지리산 산채비빔밥, 강릉휴게소영동고속도로 상.하행선 곤드레 돌솥밥, 농가토속기사 식당 강원도 원주 명성교회 수련장 앞 민물매운탕.....으로 계획을 세운다.

맛집을 방문을 하면서 그들은 품평회를 한다.

차를 타고 달리면서 먹었던 집의 맛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음식의 종류. 재료. 서비스, 만드는 시간. 계절을 타는지 안타는지....도영만은 차 카스테레오로 녹음을 한다.

싸운 음식을 분석하고 ...기록하고

도영만은 가족에게 맛집 비법이란 유산을 죽여가는 아버지의 애타는 심정으로 물려주려 하는데 오히려 가족간의 갈등만 증폭된다.

민아는 계속 먹어서 역도 시키려는 속셈이라며. 단식을 선언하고, 민구는 충치가 더 썩어 가는지 치약을 입에 넣는 양이 점점 많아진다.

맛집에서 먹는 모든 음식 맛에서 민트향이 난다고 중얼거리고,

엄마는 그냥 배가 나와서 나온 거라 생각했는데 임신이란다.

그 와중에 안하던 입덧을 시작하는데....

이제 계획했던 맛집 기행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엄마의 입덧으로 인해, 이상한 불량과자나 과일등을 먹으러 장터로 이상한 곳으로 다니는 입덧 맛 기행이 되어버린다.

도영만은 이게 아닌데...시간이 얼마 없는데...

점점 죽음이 압박해 오는 도영만. 마음이 급하다.

입덧으로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엄마 때문에 이상한 길을 달리게 되고. 내비게이션에도 없는 길로 들어서게 되는 도영만 가족.

그곳을 달리다 허름한 식당하나를 보게 되고. 도영만네 가족은 식사를 하게 되는데

어쩐 일인지 전혀 입덧도 하지 않고 잘 먹는 아내. 그리고 민구와 민아...그리고 점점 입맛을 잃어 가던 도영만 자신도 잘 먹는다.

그리고 둘러보니 어떻게 이런 곳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찾아 온 것일까? 의문이 풀린다.

인터넷과 책에서도 본적이 없는 최고의 맛집.

분점 하나 내자고 백지 수표를 내밀어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다는 주방장겸 사장님은 바로 고집 세기로 유명한 황해도 출신의 피난민 출신. 대한민국에서 하나 밖에 없는 맛집.인 것이다.

그래 여기다.

여기서는 음식 사진도 못 찍게 하고. 음식이 남아도 절대 싸가지 못하는 게 철칙이다.
이 집의 비법만 알아낸다면 내가 없더라도 우리 식구들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도영만.
밤이 되자, 도영만은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 최고의 맛집으로 향했다.

그 시각, 끈질긴 섭외로 촬영허락을 맡게 된 서울 방송국에서 최고의 맛집을 촬영을 하러 내려오
고 있었다.

방송국 사람들인 줄 알고 문을 열어주는 주인영감, 강제로 문을 밀고 들어가는 도영만.

저녁 먹으러 온줄 알았던 가족들이 주인영감 보다 더 놀란다.

소스의 비밀과 요리를 가르쳐 달라는 도영만.

절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럴 수 없다고 계기는 북한 황해도 출신의 주인 영감.

진짜 목에 칼을 들이대는 도영만. 칼을 든 도영만의 몸에 땀이 비 오듯 흐른다.

경악하는 가족들 앞에서 도영만은 비법만 가르쳐 주면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소리친다.

하는 수 없이 요리를 시작하는 주인영감.

절대 안 가르쳐 주려고 시간을 끌며. 맛의 비율을 달리 하는 교활한 주인영감.

그러나 이들은 오늘 낮에 맛을 봤고. 그 맛을 기억하고 있다.

폼핑회처럼 먹어보고. 버리고 다시 만들게 하는 작업들을 계속한다.

곧이어 도착한 서울 방송국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자, 살려 달라고 도망가는 주인영감.

인질극을 직감한 방송국 사람들이 경찰을 부르고. 대치 상태가 되는 도영만네 가족들.

예능 프로에서 뉴스 속보로 들어가게 되는 상태가 된다.

하지만 음식을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법.

음식이 끓고 있는 중간에 소스 창고로 향하는 도영만과 주인영감. 아내 김창숙..

도영만은 아들 민구도 데리고 소스창고로 들어간다.

“아들 잘 들어. 이제부터 우리 집 가장은 바로 도민구다!”

“여보 우리 잘 살아 왔잖아..이러지마..우리도 개발하면 되잖아..”

“우린 그럴 시간 없어.”

아버지의 암을 여기서 알게 되는 가족들. 그동안의 여행 목적을 알게 된 민구와 엄마.

“이게 내가 너희들에게 해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아버지로써 남편으로써..

조만간 병풍 뒤에서 향냄새를 맡아야 한단 말이라구 알아들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 정신 똑바로 차려야돼!”

도영만의 고문과 협박을 이기지 못한 주인영감이 소스의 비율을 맞추기 시작한다.

핸드폰으로 소스 비율 맞추는 것을 녹화하는 도영만.

“자! 맛을 봐. 그리고 이 맛을 기억해”

이런 상황이 된 것이 아버지의 암 때문이라는 두려움에 숨을 헉헉 거리는 민구. 헉헉 거리는 입

에 치약 거품이 흘러나온다.

“정신 차려! 도민구! 시간이 없어. 맛을 봐. 그리고 그 맛을 기억하란 말이야!”

입에서 치약 거품이 나오고 있다. “치약 끊어! 도민구!”

민트향의 치약이 민구의 손에서 떨어진다.

그 시각

창밖을 향해 “조금만 기다려요. 다 돼가요” 소리치는 도민아.

커다란 탁자를 온 몸으로 밀고 있다. 과연 힘 하나는 대단하다.

대치중인 경찰들이 “뭐가 다돼간다는 거야?” “그리고 재네들 뭐야?”

“그게 아직 신원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네들이 왜 저기서 저 지랄이냐고?”

주방 창문에 매달린 민아.

요구조건을 묻는 경찰에게 전국 방송이냐고 묻는 민아.

그렇다고 하자. 밀고 온 탁자 위에 올라서더니 이효리의 섹시 댄스를 추면서 노래를 선보이는 민아.

소스 창고에서 나오는 아빠. 엄마. 민구. 주인공감.

도영만 아들민구에게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고 말한다. 민구가 고개를 끄덕인다.

“당신 이 맛 기억할 수 있겠어?” 동영상을 찍은 핸드폰을 내밀며 “잘 보관해야 돼.”

부인이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인다.

너무나 즐겁게 춤을 추고 있는 민아의 모습을 보는 아빠. 엄마. 그리고 오빠.

아버지가 말한다.

“민구야 너도 용기 낼 수 있겠어?”

“아빠! 라이브래! 이거 전국방송이래” 민아가 신나서 소리를 지른다.

민구가 탁자위로 올라간다.

“전향자 사랑한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전향자 요리학원 원장 전향자 누나 사랑한다.!”

그렇게 속앓이 하던 누나에게 전국적으로 고백한다.

어느덧 도영만은 가족들의 장기였던 것을 살려주고 박수쳐주는 아버지로 돌아와 있다.

용기 없는 아들에게 용기를... 그렇게 소원이던 전국방송에 나가고 싶은 민아에게 방송 출연을...

마누라에게 요리 비법을.. 아버지 없이도 살아 갈 수 있는 길을 하나씩 열어준다.

주인장이 뛰어 도망 나가고, 경찰들의 체루탄이 투척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순간.

경찰들의 군화소리 들리고. 엠브란스의 소리가 들리며... 힘없이 쓰러지는 도영만.

“이제 병풍 뒤에서 편안히 향냄새 맡을 수 있겠다.”

Fade out

-에필로그

“푸짐한 레스토랑” 이 보인다.

손님이 미어터진다.

“여기 뭐 잘해요?”

“못하는 거 빼고 다 잘해요!”

그런데 변한 것들이 보이질 않는다. 정말 많은 음식 메뉴들도 그대로이고. 푸짐하게 많이 주는 것도 예전과 똑같다.

가족 여행에서 찍은 도영만의 환히 웃는 영정사진이 식당 한 칸에 걸려있다.

푸짐한 레스토랑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현수막 하나.

“저희 푸짐한 레스토랑의 모든 음식에는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KBS, MBC, SBS 8시, 9시 뉴스에 나온 집” 이란 현수막이 붙어있어 웃음을 자아낸다.